

## 도건축사회 '건축문화축제'

### 4일까지 삼성문화회관서 전시

전라북도 건축사회(회장 이성엽)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준비한 '건축문화축제'가 1일 '건축설계작품 국제교류 전시회'를 시작으로 나흘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건축문화축제는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건축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친환경 건축문화시대의 건축사의 역할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13면>

건축문화축제는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전시회와 초청 강연회, 기념식 등으로 치러진다. 이날 전북대삼성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시작된 국제교류 전시회에는 독일 22개 작품, 중국 강소성 14개 작품, 전북지역 회원들이 출품한 22개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회는 4일까지 계속된다. 박영민기자youngmin@



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건축설계작품 국제교류 전시회에 회원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